

전주대 김창권 교수, 한독경상학회 회장 취임

전주대학교 김창권 교수(물류무역학과)가 (사)한독경상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까지 2년이다.



한독경상학회는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이른바 독일어권 지역에서 수학하고, 현재 국내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영·경제 전문가들이 1978년 학회를 설립한 이래 올해 44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르면 학회는 한독간의 학술면 또는 문화면 등의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교류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제·경영학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독일 관련 경제, 경영, 정책 사회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 등 교육기관 종사자, 연구기관 연구원 박사 등이 회원으로 주를 이루나, 비즈니스 종사자,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 정치가 등을 포함 400여 명의 개인회원과 30여 개의 기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창권 교수는 "학회의 강점 연구 분야인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분석과 자동차산업, 아우스 빌통 히든챔피언과 같은 독일의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산업 기업 및 교육시스템 비교 연구 등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경제·사회정책에 비판적인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급변하게 진행될 4차 산업혁명과 및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대 전환 시기에 대두되는 여러 경제 및 사회적 과제의 해법을 독일어권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할 학술적 토론 포털인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김창권 교수는 국제경제, 통일경제 및 중소기업경제의 전문가로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태권도그랑프리 챌린지 개최 기념 '식수 행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 이하 재단)은 지난 10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앞 잔디밭에서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이하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태권도 발전을 기원하며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수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과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국기원 이동섭 원장 국민의 힘 정운천 국회의원, 황인홍 무주군수, 이상근 화백, 홍수환 WBA 전 세계챔피언(재단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수는 태권도 진흥과 발전 등을 기원하며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산다는 '주목'을 식재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주목의 꽃말은 '병에 다 태권도의 영리한 발전과 명예로움을 의미하며 오늘 기념식수를 갖게 되었다'라며 "12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그랑프리 챌린지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많은 분들의 관람과 응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 학생들, ESG 운동 펼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가 ESG 정책의 일환으로 '클린캠퍼스 만들기 프로젝트'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10일 대학 내 주요 건물 주변에서 제1회 클린캠퍼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정상모 총장 최용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및 교직원 100여 명은 대학 본관을 출발해 2개의 트랙으로 나눠 대학 곳곳의 버려진 쓰레기 및 담배꽂이를 주웠다.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부스 등을 안내하고, 비흡연자를 배려한 흡연대 지킴이 운동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비전대 총학생회와 캠퍼스 내에서 ESG정책을 실천하고자 깨끗한 캠퍼스 구축 및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을 목표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폐적하고 건강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기획했다.

최용빈 학생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대학의 주인이 학생이란 생각으로 직접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모 총장은 "우리가 생활하는 소중한 캠퍼스를 우리 스스로 건강한 공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후원

국민연금, 2012년부터 총 144명 3억4400만원 상당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0일 저소득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4,788만 원을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1인 1나눔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추천한 장애아동 19명의 재활치료를 위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1인 1나눔 기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여에서 매월 원천 공제하는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참여를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공단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 지난 2012년부터는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4명의 장애아동에게 3억4천4백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해왔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후원으로 장애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남원시, 관광공사·전북도 3자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가 지역의 관광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등과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협약식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기간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증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월 남원시가 최종 선정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관광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광무원 일원에 95억 원(국비 3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35억 원, 민간협출자 15억 원 등)을 투입, 현재 서비스별 세부계획과 구축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마추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조성사업을 통해 아침부터 한밤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테마와 스토리 구성을 가진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MZ세대 취향에 맞춘 전통문화 이색 체험 서



비스는 물론 한국인의 흥과 열거는 감성 문화서비스를 늦은 밤까지 제공해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 후 이환주 시장은 "광한루원 주변 시설 인프라 구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부족했던 체험관광 콘텐츠는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보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 관광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교육청, 풍물체험 '있다' 학교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풍물체험 '있다' 학교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풍물체험 '있다'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 계승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하게 풍물놀이를 재구성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시범 사업으로 군산남초, 남원초, 장승초 3개교를 선정, 학교별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군산남초는 군산의 대표 예술단체인 '흙소리'와 연계해 사물놀이 교육을 진행한다.

남원초는 남원의 대표적인 연희단 '정연'의 지원을 받아 관소리과 민요 수업을 한다.

진안장승초는 3~6학년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8호인 전라북도진안중평굿보존회 농악놀이를 진행한다. 이를 학교는 8월부터 11월까지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학교를 통해 풍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군산남초 한정원 교사는 "K-POP의 뿌리는 풍물놀이와 관소리이며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바르게살기협, 한부모 세대 행복 꾸러미 전달

전주시 전북도(동장 양창원)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김봉길)는 지난 9일 관내 한부모 20세대에 빈려식품, 행복 꾸러미(리본, 김, 초코파이 등)를 전달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봉길 회장은 "꾸러미 뿐만 아니라 빈려식품도 전달함으로써 식물로 인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쁘게 잘 키워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주민 김모씨는 "꾸러미를 전달받아 감사하고 빈려식품을 받아 더 감사하다. 특히 아이가 더 좋아해서 기분이 좋고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늘푸른어린이집 원생들, 체험부스 수익금 기부

에코시티에 위치한 국공립 늘푸른어린이집(시설장 고유정) 원생들이 10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송천동 주민센터(동장 김주환)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현금은 늘푸른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지난날 가정의 달을 맞아 케이크를 만들고 판매 등 체험부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늘푸른어린이집 가정의 달 체험부스는 원생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이 없어 소외되는 아픔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고유정 원장은 "가정의 달 행사를 통해 원생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더불어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교육효과를 보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원생들이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현장교육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경로당 운영 재개에 따라 지난 8일과 9일, 관내 316개소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완산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을 서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했으나,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3년 만에 현장교육을 재개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보조금 지출 시 유의사항, 경로당 안전관리 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완산구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을 운영하는 임원진들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경로당 회원을 소중히 여기고 경로당이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정리수업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수료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양병오)는 지난 10일 수료생과 강사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비직업교육훈련 '정리수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책가꾸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직장생활과 살림을 병행 할 시간이 부족해 가사노동에 시간을 절감하고 전문적 수납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창업과정으로, 정리수업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총 20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센터는 국비 직업교육훈련 맞춤형노동생활지원사 양성과정을 21일 가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고창 의용소방연합회, 심폐소생술 경연 준비 총력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2022년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 의용소방대 13개 팀(생활안전 6팀, 심폐소생술 7팀)이 출전하며, 고창소방서는 김길순 공음 여대장과 정현경 심술 여대원이 심폐소생술 분야에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당신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 분야에 출전하는 김길순 대장과 정현경 대원은 구슬땀을 흘리며 경연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넓혀가는 가운데 이번 대회를 통해 의용소방대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명성 기자

장수소방서, 여름철 폭염구급대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전라북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매년 0.3℃ 상승하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높아 폭염구급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장수소방서는 온열질환자를 위한 얼음조끼 등 9종, 감염보호장비 5종을 각 차량에 적재 보관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이에 무주191안전센터(센터장 공근)는 폭염 관련하여 구급대원 및 캠퍼스 담당대원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임상적 특징, 응급처치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소재실 서장은 "올해 평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군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